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 활용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방울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부교수

김민호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Export Support Projects for SMEs in Jeollabuk-do

Bangwool Han^a, Minho Kim^b

^a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Jeonbuk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b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Jeonbuk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30 November 2023, Revised 15 December 2023, Accepted 22 December 2023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export support projects in Jeollabuk-do and to provide implications to the policy makers and to the local exporters. Based on this review, the study proposes future measure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current Jeollabuk-do export support project.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reviews export support projects in Jeollabuk-do, d examines program types and utilization status, and subsequently summarizes the key aspects of Jeollabuk-do SMEs' export support projects.

Findings - This study suggests that Jeollabuk-do's export support project can become more effective through active development of overseas markets and professional integration of marketing activities, particularly focusing on regionally specialized export products. Additionally, given the crucial roles played by the government, related agencies, and local offices in improving the export capabilities of SMEs in Jeollabuk-do, there is an emphasis on the need for continuous and systematic follow-up manage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export support projects and service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Whil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n Korea account for a significant portion of export activities, their actual export performance and contribution are low.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SMEs, particularly those located in regions other tha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is not improving despite various export support projects being promoted. Under the circumstances, this study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to the policy makers and to the local exporters.

Keywords: export support project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EMs) in Jelloabuk-do Province, regional improvement measures

JEL Classifications: F10, F68

^a First Author, E-mail: bellhan8@jbnu.ac.kr

^b Corresponding Author, E-mail: kimmh@jbnu.ac.kr

© 2023 The Institute of Management and Economy Research.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상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수출 확대가 필요하다. 한국은 글로벌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 구축을 통상정책의 우선순위로 진행해오고 있는 상황으로 2004년 칠레와 FTA를 시작으로 현재 2022년까지 58개국과 18건의 FTA를 발효하였다. 비록 과거 세계금융위기 시기를 거쳐 COVID-19 발발로 인한 단기적인 감소 추이가 2020년도에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한국과 칠레 FTA 협정 이후 한국의 수출입은 전반적으로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농식품 기업의 수출 결정요인과 전략을 분석한 이두영 외(2021)의 보고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 분류(product categories)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정부조달·지적재산권·기술표준 등 다양한 규범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해 오고 있다.

한국의 전반적인 수출입 증가현상 속에서, 전라북도의 무역수지는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나정호 외(2020)은 전라북도 수출활성화 지원방안 보고서에서 2004년부터 나타난 지속적인 수출활동의 증가추세는 2011년을 지난 다음 해부터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전라북도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2011년 이후, 전라북도 수출에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조선산업(造船産業)의 수출 부진은 전라북도의 수출이 한국의 수출과 탈동조화되는 즉,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을 가속하였다. 소규모 개방경제로 정의되는 한국시장의 특징을 고려할 때, 국내 지역의 수출 탈동조화 현상은 전라북도 경제성장률의 감소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통계청 지역소득 데이터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지역내총생산 실질성장률을 전국과 비교한 결과 평균적인 차이가 2010년을 기점으로 확대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 시점은 앞서 언급한 전라북도의 수출의 디커플링 현상이 시작되는 2011년과 거의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김민호 외 (2022)는 전라북도 중소기업 수출증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에서 전라북도 수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조선 산업의 수출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1년과 같고 전라북도의 지역내총생산 실질성장률과 수출은 2018년을 기점으로 다시 한 번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제너럴모터스(GM) 철수로 인한 군산공장이 폐쇄된 영향이라고 판단되어 진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전체와 전라북도의 수출 증가율의 디커플링은 도내 일부 대기업 주도산업인 조선 및 자동차 분야의 문제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전라북도 수출현황에서 대기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출을 제외하고 전라북도의 수출의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전체와 전라북도 내(內) 대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의 수출추이를 비교하였을 때, 전북 수출의 디커플링은 거의 전북의 대기업 수출의 급감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은 또한 전라북도의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기업들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는 자체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므로 정부와 지자체 모두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지역 중소기업의 지리적, 산업적 특성을 조사하고 현행 수출지원 사업을 검토하여 전라북도 수출지원 사업이 개선되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I. 선행연구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을 채택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수출지원 제도를 제공해 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왔으며, 최근에는 특히 지역별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사업 현황과 성과에 대한 연구가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지원 정책의 개선방안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과 가치 창출 측면에서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상진과 김형철(2017)의 연구는 중소수출기업을 위한 수출지원제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고찰이다. 해당 연구는 기존의 수출지원 사업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개선에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기술과 자금 지원을 맡아야 하고, 해외시장 개척과 같은 마케팅 요인은 통합된 기관이 담당해야 한다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다. 이 기관은 먼저 수출마케팅 컨설팅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수요자에게 명확한 인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수행기관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며 분야별로 지원이 집중되어야 한다. 더불어, 단일 지원기관이 지원하면 시행사업의 평가와 검증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박경민 외(2022)의 연구는 중소기업의 수출활동에서 나타나는 애로요인이 수출지원 제도의 활용과 수출성파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다. 해당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외시장 정보부족, 해외마케팅 역량부족, 무역실무 역량부족, 그리고 외부환경 요인변화는 모두 수출지원 제도의 활용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는 수출지원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수출지원 제도의 활용이 정량적 수출성과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면서도 바이어의 고객역량 한계를 고려하여 수출지원 제도의 수혜기업의 평가과정에서는, 양적 및 질적 측면을 모두 반영하고, 성과 관리와 지속적인 문제 개선이 필요하며, 지원 사업을 통해 성과를 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사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김태환과 송진구(2020)의 연구는 경기도 안양 지역에서 운영중인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성 증진을 위한 고찰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수출바우처 및 안양시의 유사한 수출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찾아가는 바우처 도우미'사업을 통한 1:1 맞춤형 지원을 강조하고, 또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서비스 다변화를 추진하며, 안양 지역에 특화된 차별화된 수출바우처 서비스를 개발해야한다고 제안하였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협력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동오와 유철(2021)의 연구는 광주와 전라남도에 소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광주 전남지역의 지자체 및 유관기관이 시행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활용과 성과를 조사한 것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특성, 수출산업 특성,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의 인지도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수출지원 제도의 활용이 수출성파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중소기업의 수출성파는 경제적 성과와 전략적 성과로 나뉘며, 경제적 성과 측면에서는 수출 특성과 이용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적 성과에서는 CEO의 의지, 산업내 경쟁강도, 경제적 유용성, 그리고 수출지원제도의 인지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제도 활용과 수출성파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책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박영호와 최장우(2015)는 대전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제도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중앙정부, 지자체 및 무역 유관 기관이 유사하고 중복된 수출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그 효율성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지원 제도의 인지도 및 활용도와 수출성파 사이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나타난다는 이론을 근거로 하여 수출지원 제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는 수출지원기관들과 공동으로 종합 홍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청은 전략적으로 수출지원제도 홍보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홍보를 일원화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수출지원제도 활용상의 애로사항으로는 까다로운 지원 절차와 지원 프로그램의 중복성을 지적하면서 간소하고 실질적인 지원 사업 제공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지원 제도의 활용도와 수출성파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지원 기관이 사업특성이나 지원목적이 아닌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참여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차별성 없이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김진삼, 2011; 이재은 외 2017; 유세준, 2010). 또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역별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수출기업들의 인지도 및 만족도에 따라 지원 사업 활용이 수출성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한 주요 연구들과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지역별과 산업별 분석한 최근 보고 결과에 대한 요약은 Table 1에서 제시하고 있다.

Table 1. Major Studies on the Export Support Projects

연구자	연구내용
김현창(2021)	경기도 중소기업 현황과 정책제언 연구에서 지역경제 현실에 맞는 지원을 강화하고 경기지역 중소기업 지원 사업 성과분석 관리시스템 구축 및 기술혁신 산업분야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중요하다.
박건영(2019)	한국의 1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한 한국의 지역별 수출 집중도와 경제성장 연구에서, 지역별 수출 집중도는 각 지역의 산업구조에 따라 다양하게 경제성장여 영향을 미치고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적절한 수출전문화가 필요하다.
조성주 외(2019)	농식품 기업의 수출 결정 요인과 수출성과에 유효한 전략을 분석한 연구(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에서, 차별성 있는 농식품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수출확대가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수출보험 및 해외판촉과 같은 농식품 수출 지원 정책의 내실화를 통해 지원사업의 효율성 향상이 중요하다.
김진삼과 김영식 (2011)	경북지역의 수출중소기업의 수출지원제도 활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경상북도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 인력의 양성을 강조하고, 지원 사업 수혜 중소기업의 국제화역량과 수출경쟁력을 염두에 둔 단계별 수출지원제도가 중요하다.
오원선 외(2010)	인천지역 중소기업 정보화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에서 글로벌 네트워크 및 IT 금융교육과 같은 중소기업의 정보관리 기술 및 전략 수준이 국제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Ⅲ. 전라북도 수출현황

본 장에서는 전라북도 내(內),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규모의 수출기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수출현황을 국가별로 먼저 점검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 중 전라북도 중소기업들이 수출 대상으로 선정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출현황을 검토한다.

1. 국가별 수출현황

전라북도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폴란드, 대만, 브라질, 벨기에, 멕시코, 독일, 러시아 등으로 전체 한국기업의 주요 수출 대상국가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그 중, 중국은 전라북도 1위 수출 대상국으로 對중국 수출 의존도가 20.9%로 높은 편이지만, 한국 전체 對중국 수출(25.6%) 비율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주요 수출국인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전라북도의 해당국가 수출 현황 순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오현성과 임현미 (2021)의 전라북도 중소기업 수출증장기 종합계획 보고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라북도 수출의 중화권 의존도가 낮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전라북도 수출 상대국으로 新남방국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과 같은 유라시아권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알제리와 같이 아랍·중동권역 등으로 폭넓게 수출을 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기업의 연평균(2017~2021) 수출성장률 (중국(10.9%), 미국(11.6%), 태국(12.6%), 폴란드(37.9%), 브라질(22.6%), 벨기에(19.0%), 멕시코(12.3%), 러시아(8.1%), 말레이시아(15.1%), 방글라데시(7.5%), 네덜란드(12.2%) 시장을 중심으로 나타났고, 우즈베키스탄(-20.8%), 호주(-11.1%), 영국(-10.1%), 터키(-7.8%), 알제리(-70.6%) 시장을 대상으로는 수출이 감소하였다. 전라북도의 경우, 해당국가 대상 전반적인 수출실적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Table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비교적 알제리(11.1%), 방글라데시(6.7%), 우즈베키스탄(5.2%), 벨기에(4.1%), 폴란드(3.0%), 브라질(2.9%)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전라북도 수출 비중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Table 2. Export Ratios by Country Made by All Firms within Jeollabuk-do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 평균	비중	전북 비중
총계	6,308.6	7,828.4	6,537.4	5,841.7	7,818.6	6,867.0	100.0	1.2
중국	1,092.9	1,637.3	1,486.8	1,291.7	1,654.8	1,432.7	20.9	1.0
미국	869.9	992.7	894.4	928.4	1,347.4	1,006.6	14.7	1.3
일본	428.6	489.4	448.9	380.5	486.5	446.8	6.5	1.6
베트남	562.3	440.3	419.4	352.2	448.7	444.6	6.5	0.9
인도	191.0	289.2	202.2	167.3	210.8	212.1	3.1	1.4
태국	135.7	196.6	187.3	179.8	218.4	183.6	2.7	2.3
인도네시아	148.8	256.6	119.4	124.5	176.6	165.2	2.4	2.1
폴란드	76.2	88.6	121.6	200.3	275.7	152.5	2.2	3.0
대만	127.6	239.5	112.0	118.8	151.8	149.9	2.2	0.8
브라질	97.6	168.3	112.2	88.9	220.7	137.5	2.0	2.9
벨기에	81.1	163.0	130.4	109.1	162.5	129.2	1.9	4.1
멕시코	93.4	149.6	120.2	101.7	148.5	122.7	1.8	1.2
독일	132.9	127.4	120.4	108.9	120.2	122.0	1.8	1.3
러시아	109.3	108.7	128.0	93.9	149.2	117.8	1.7	1.5
홍콩	115.6	109.9	93.5	79.1	111.4	101.9	1.5	0.3
우즈베키스탄	92.8	213.9	112.2	27.7	36.4	96.6	1.4	5.2
호주	137.4	98.8	100.0	54.2	85.7	95.2	1.4	0.9
사우디아라비아	85.6	97.4	118.2	78.9	72.9	90.6	1.3	2.3
말레이시아	79.3	101.7	69.3	59.4	138.9	89.7	1.3	1.0
방글라데시	81.8	99.1	68.0	73.2	109.3	86.3	1.3	6.7
영국	105.2	106.4	78.7	59.6	68.8	83.7	1.2	1.4
네덜란드	67.9	92.2	74.9	75.6	107.5	83.6	1.2	1.8
필리핀	70.5	98.6	88.7	50.0	76.7	76.9	1.1	0.8
터키	87.6	89.1	73.2	59.5	63.3	74.5	1.1	1.2
알제리	115.2	168.9	79.1	7.7	0.9	74.4	1.1	11.1

<주> 비중은 전라북도 중소기업 전체 수출 중 해당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중소기업 비중은 해당 국가로의 전라북도 전체 수출 중에서 전라북도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Global Trade Atlas, 한국무역협회(K-STAT)>

2. 중소기업의 국가별 수출현황

전라북도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홍콩, 멕시코, 말레이시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연합, 필리핀, 폴란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권에 위치한 나라들(일본, 홍콩, 인도네시아 등)이 차지하는 수출대상국의 비중을 높게 차지하는 반면, 폴란드, 벨기에, 브라질 등의 장거리 서구권의 수출대상 국가들은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라북도 중소기업의 수출 상대국 상위 3개국(중국, 미국, 일본)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47%로 거의 절반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다.

전라북도 중소기업 수출의 20.9%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제1위 수출 상대국이다. 전라북도의 對중국 수출 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9.7%이며, 연평균 수출 성장률은 6.5%에 달하고 있다. 미국은 전라북도 중소기업의 제2위 수출 대상국이며 수출의 14.0%를 차지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對미국 수출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8% 수준으로 연평균 對미국 수출 성장률은 7.6%를 차지하고

있다. 전라북도 중소기업의 對일본 수출비중은 1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출 성장률은 8.7%로 전라북도의 일본 수출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7.0%로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전라북도 중소기업의 수출국가 선정에서 눈에 띄는 현상 중 하나는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아시아권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 일본, 미국과 같은 전통적인 시장과 新남방국가들과 유라시아국가들, 그리고 중동국가들과 같은 신흥시장을 분리하여 수출 진출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또한, 모든 신흥시장을 동시에 공략하기보다는 대륙별로 거점국가를 선정하여 경제적·문화적 인프라 구축을 하는 전략적인 수출 진입방법을 구현하고 있다. 이는, 몇몇 전략 국가를 교두보로 하여 인근 국가와 인근 대륙으로 수출 국가를 확대해 가는 전략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뜻한다. 아래 Table 3 는 최근 5년 동안 나타난 전라북도 소재 중소기업의 국가별 수출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Table 3. Export Ratios by Country Made by SMEs within Jeollabuk-do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 평균	비중	중소 기업 비중
총계	1,159.7	1,349.1	1,610.3	1,176.9	1,476.6	1,354.5	100.0	19.7
중국	256.9	297.7	323.4	203.9	330.9	282.6	20.9	19.7
미국	165.8	165.2	211.3	180.8	222.3	189.1	14.0	18.8
일본	130.7	159.3	220.0	133.4	182.3	165.1	12.2	37.0
베트남	62.7	90.4	106.5	84.0	95.1	87.7	6.5	19.7
태국	40.7	66.2	84.5	72.2	65.9	65.9	4.9	35.9
인도네시아	34.6	75.2	30.0	33.5	23.7	39.4	2.9	23.8
홍콩	30.4	35.4	38.4	32.0	32.5	33.8	2.5	33.1
멕시코	24.4	27.4	27.7	36.4	47.0	32.6	2.4	26.6
대만	25.9	19.1	39.5	25.6	46.2	31.3	2.3	20.9
말레이시아	12.3	42.4	36.0	10.4	42.8	28.8	2.1	32.1
러시아	14.2	12.7	33.5	28.2	37.7	25.2	1.9	21.4
아랍에미리 트연합	31.8	27.2	14.9	24.6	20.2	23.7	1.8	44.0
필리핀	18.2	22.9	18.1	24.6	33.2	23.4	1.7	30.4
폴란드	10.6	14.2	55.7	10.7	15.0	21.2	1.6	13.9
스위스	0.5	0.4	39.7	26.8	31.6	19.8	1.5	68.2
호주	14.4	10.5	12.3	18.5	25.9	16.3	1.2	17.2
인도	15.2	10.4	14.4	15.9	25.6	16.3	1.2	7.7
네덜란드	16.9	9.9	26.4	9.7	10.5	14.7	1.1	17.6
우즈베 키스탄	2.7	14.0	36.7	1.1	16.1	14.1	1.0	14.6
독일	11.4	8.0	15.1	12.1	17.0	12.7	0.9	10.4
쿠웨이트	24.3	33.4	0.9	0.6	3.6	12.6	0.9	60.7
터키	10.0	13.7	15.7	11.6	10.3	12.2	0.9	16.4
영국	15.1	15.8	9.6	7.1	10.0	11.5	0.9	13.8
알제리	33.1	15.5	3.3	0.6	0.1	10.5	0.8	14.2
사우디 아라비아	13.4	11.1	6.9	8.7	2.0	8.4	0.6	9.3

<주> 비중은 전라북도 중소기업 전체 수출 중 해당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중소기업 비중은 해당 국가로의 전라북도 전체 수출 중에서 전라북도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Global Trade Atlas, 한국무역협회(K-STAT)>

IV. 전라북도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

본 장에서는 전라북도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의 현행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도내(道內)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수출지원 제도와 프로그램을 검토하고자 한다. 앞서, 현행 전라북도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의 유형과 활동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였다.

1. 수출지원 사업 유형 및 현황

전라북도 중소기업 지원 사업정책 시행은 1)자금지원, 2)창업지원, 3)기술지원, 4)인력 및 고용지원, 5)수출·관로지원, 6)소상공인지원, 7)친기업환경조성 및 인프라구축 총 7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구체적인 27개의 주요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은 수출·관로개척을 중심으로 사업영역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들어, 사업영역별 수출·관로개척 및 해외시장 다각화를 목표로 해외 전시회와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제품운송비, 통역료, 기타 부스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을하고 있다. 또한,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사업은 중국, 러시아, 동남아, 동유럽, 아프리카, 남미를 중심으로 해외 관로개척에 필요한 항공료, 시장조사비, 현지바이어 발굴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FTA활용지원센터와 FTA활용마케팅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새로운 해외진출시장 확보에 필요한 마케팅 활동비용 및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Table 4는 2022년 중소기업지원 시책 안내서를 토대로 주요 수출지원 사업 활동내용을 요약하였다.

Table 4. The Contents of Supporting Projects for SMEs

지원사업명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사업영역
1. 도지사인증상품 육성지원	인증상품 판로개척 및 홍보지원, 도지사인증상품 브랜드 홍보, 우체국쇼핑몰 판로지원	수출판로개척
2. 중소기업 제품공공구매 확대 지원	공공기관 합동공공구매 전시회 상담, 유관기관 합동공공구매 지원단 운영	국내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3. 우수상품 마케팅 다각화 지원	온라인 프로모션 및 판촉행사지원, 오프라인마케팅 지원	국내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4. 전자상거래 운영지원	지역상품 홈페이지, 온라인쇼핑몰, 홍보동영상 지원	국내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5.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지원	도내 중소기업 입찰교육 및 1:1 컨설팅 지원	국내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6. 마을기업 고도화	기술 및 브랜드개발, 시설·장비구축, 홍보·마케팅 및 사업개발비, 제품개선 지원	수출판로개척
7. 수출기업 전시·박람회참가 지원	단체·개별 전시 및 박람회 지원, 도내 중소기업 국제·국내 박람회 부스설치비, 통역료	수출판로개척
8. 무역사절단 파견지원	마케팅능력제고 및 수출확대지원, 시장조사비용지원	수출판로개척
9. FTA활용 마케팅 지원	FTA체결 및 예상국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 수출증진지원, 마이오피스, 해외지사, 수출상담회, 외국어통번역지원	수출판로개척
10.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도내 중소기업 경쟁력강화교육 및 설명회, FTA체결·예상국에 따라 실수요 중심 단계별지원, 수출바우처 및 컨설팅지원	수출판로개척
11. 해외 홈쇼핑 및 온라인 마케팅 지원	홈쇼핑 및 온라인 입점지원, 온라인 홍보지원	수출판로개척
12.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 운영	글로벌파트너지사화사업, 샘플전시관 운영, 수출전문가를 통한 해외마케팅 대행	수출판로개척
13. 수출보험 가입비 지원	수출에 따른 위험 요인 경감과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확보	수출판로개척

14. 국제특송물류비, 기타국내·외 마케팅 지원	국제특송물류비지원, 다문화가족 활용 해외마케팅지원, 코트라글로벌네트워크 활용	수출판로개척
15. 수출통합지원센터 운영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 운영 및 통상전문가 컨설팅 지원	수출판로개척
16. 수출새싹기업 지원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수출역량진단	수출판로개척
17. 용산역 전북 비즈니스라운지 운영	도내 기업의 수도권 비즈니스 활동 비용부담 완화	국내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18.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	도내 시군에서 소요되는 물품구매 시 탄소응용제품 구매 확대를 중소 탄소기업의 초기시장창출	국내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19. 탄소산업 활성화 T2B지원	홍보·디자인 지원, 인증·특허 지원, 수요-공급기업 교류회지원, 탄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시제품 등 애로기술 해결과 사업화 지원 및 탄소제품·기술의 기업간거래 활성화·상용화 촉진	국내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0. 사회적경제제품 마케팅 및 장터운영	도내 지역축제, 대형오픈마켓과 연계한 판매장터 운영, 참가비용지원	국내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판매지원	주요 온라인몰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판촉, 할인쿠폰 및 온라인 광고, 상품화 컨설팅	국내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2. 사회적경제 성장기업육성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마케팅 및 신제품개발과 비즈니스모델 지원	국내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3. 사회적 경제상생협력 지원	협업·공동브랜드 개발, 기업 공동상품 제작, 홍보, 마케팅, 판로개척 지원	국내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4. 전라북도 디자인역량강화 지원	중소기업 디자인지원 및 디자인 전문 인력 교육과 포럼	국내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5. 작은기업 맞춤형 디자인지원	디자인 분야 컨설팅, 시각·브랜드·패키지 디자인 개발지원	국내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6. 중소기업우수제품 맞춤형 디자인 지원	상품기획, 시제품제작, 개발제품 마케팅 전략, 홍보, 디자인전주기 컨설팅	국내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7. 온라인 공동 활용 화상회의실 운영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심 화상회의실 구축, 비대면 업무 환경지원	국내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 전라북도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 운영기관

1) 도(道) 내(內) 대표 유관기관

전라북도 내(內) 대표 기업지원 기관으로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등이 있다. 2022년 전라북도 중소기업지원 시책 현황에 따르면 대표 유관기관은 수출신용보증, 수출바우처(voucher)사업, 온라인 수출플랫폼 및 해외 시장개척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전라북도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에 협력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북지사,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그리고 전북테크노파크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을 예로서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Table 5는 2022년 전라북도 중소기업지원 시책을 바탕으로 유관기관 및 관계단체들의 주요 지원 사업을 정리하였다.

먼저,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북지사는 중소수출기업이 새로이 개척한 수출판로에 대한 기본적인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신용조사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신규수입업체의 재무현황과 경영성과 등의 전반적인 신용조사 내용을 도내 수출업체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전라북도 중소수출기업이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손실보상 제도를 통해 대금미회수위험 없이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수출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더불어, 도내 중소수출기업의 수출신용보증을 해외거래업무를 각 단계별(선적전, 매입보증, 선적후)로 연대 보증하고 중소수출기업 신용을 보장하여 용이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사하게,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는 중소기업에게 수출입절차, 대금결제단계, 통관 및 관세 환급절차, 국제계약 및 클레임, 무역실무 분쟁해결 절차 등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전북지역수출상품의 온라인홍보와 모바일광고를 지원하고 해외바이어 발굴에 필요한 통번역업무 및 외국어제품서 제작, 그리고 홍보동영상제작 등에 필요한 전반적인 해외광고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수출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통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기술 확보 및 품질혁신과 같은 해외시장진출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마케팅전략 수립과 해외 특허 및 제품인증 취득에 필요한 전문가 매칭 사업을 확대하여 지역 내 유망우수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역 농식품 수출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활성화 및 수출증대에 유용한 정보교류를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대(對)중화권(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농수산식품 수출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현지구 유통업체와 신규거래선 발굴을 통해 전북지역 농산품 생산자단체 및 제조기업의 수출경쟁력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주로, 기존의 해외거래처 및 신규 바이어와의 연계활동을 통해 주력 품목 개발과 해외 대형 유통라인 확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 농수산식품 수출바이어 및 현지 유통기업을 전북에 초청하여 무역실무 교육을 실시하는 전문적인 수출 세미나 개최를 통해 B2B 계약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Table 5. Supporting Agencies for SMEs in Jeonllabuk-do

기관명	주요사업
1.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자금, 기술, 인력, 판로, 수출 등 중소기업육성정책 전반
2.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마케팅, 구인·구직 지원
3. 중소기업 중앙회전북지역본부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운용, 판로·수출지원, 교육지원
4. 중소기업 진흥공단전북지역본부	자금지원 상담·승인, 융·복합 교류지원
5.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사업주 작업능력개발훈련, 산업현장교수, 일학습병행사업
6. 한국 표준협회전북지역본부	기술교육, 국내·외 기술표준 보급, 국제협력지원
7.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무역업무지원, 무역연구·조사, 해외마케팅 지원, 무역연수
8.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북지사	수출·입 보험제도 상담·운영
9. 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	벤처기업 마케팅 종합지원
10. 전주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중소·벤처기업육성 및 우수기술 마케팅 지원
11. 전북테크노파크	공동기술개발, 창업보육,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지원
12.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13. 신용보증기금전주지점	중기업 보증·전자상거래 보증, 보험, 창업 및 경영지원
14. 기술보증기금전주지점(전주기술평가센터)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 창업 및 R&D 지원
15. 소상공인진흥원전북본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16. 중소기업융합전북연합회	산학협력공동기술개발, 교류전문가파견 지원
17.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기업협의회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18. 전북공예협동조합	전통공예품판로개척 및 수출촉진, 해외시장개척
19. 전북프랜차이즈협회	가맹본부 대표자 교육, 예비창업자 창업컨설팅
20. 전북상공회의소	지역기업정보, 산업단지현황, 경제정책정보 제공
21. 군산상공회의소	지역기업정보, 경제동향, 수출입절차 지원
22. 익산상공회의소	지역산업육성, 무역관계증명발급 및 수출·입지원
23. 정읍상공회의소	지역기업정보 및 경제정책 동향제공
24. 한국예탁결제원 전주고객센터	동일주권, 동일규격유가 증권발행, 증권 대행, 해외DR 등
25. 전북경영자총협회	기업인사노무, 노동법률, 노사협력교육사업 지원
26. 한국여성경제인협회전북지회	창업·판로지원, 여성 CEO교육
27.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북지역센터	창업·판로지원, 장애인 CEO교육
28.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29.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기업 맞춤형 교육지원 (해법과정, 품질관리과정 등)
30. 한국환경공단전북지사	자원순환제도 이행 안내

2) 도(道) 내(內) 대표 기업지원기관

전라북도 내(內) 대표적인 기업지원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코트라전북지원단, 캠틱종합기술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은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수출지원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본 장에서는 대표 기업지원기관의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Table 6에 요약하여 제시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는 도내(道內) 중소기업의 수출 규모를 Start-up 수준부터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 등급으로 구분하고 해외시장 개척 초기단계부터 진출 후 마케팅에 소요되는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예로써, 수출인큐베이터를 해외 주요 교역 거점(중국, 미국, 독일, 일본, 멕시코, 러시아, 칠레, 두바이, 태국, 베트남 등)에 설치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현지 초기정착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식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의 해외 · 판로개척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수출플랫폼을 제공하고 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유사한 형태로,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사업 및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되는 중소기업을 지정하여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성장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확대에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는 전문적인 해외시장조사를 통해 도내 중소수출업체가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해외특허 및 규격인증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개발 비용부담을 보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신제품의 해외 판로개척에 필요한 마케팅 지원활동으로 수출상담회와 온 · 오프라인 홍보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캠틱종합기술원은 국제개발협력지원 사업을 기반으로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진출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제도에 중점하고 있다. 지역 수출업체가 보유한 제품기술을 해외시장에 소개하여 현지화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융합기술원은 현재 전북지역 자동차부품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 도내 자동차대체부품 산업을 기반으로 전기자율차, 특장차, 수소차 산업과 관련된 지역중소업체의 수출확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은 신규바이어 발굴을 위해 해외거점 파트너를 확보하고 전라북도 지역상품의 용이한 해외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를 구축하기 위한 온라인 유통망 확대와 마케팅전략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북 소상공인들에게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해외매출 증대를 위한 판로개척과 유통판로확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코트라(KOTRA)전북지원단은 중소기업에게 해외시장조사와 판로개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지원 및 온라인 ·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수출컨설팅을 실시하고, 수출활동에서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무역자료 공유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유사한 형태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대표적인 지원 사업은 클라우드펀딩 프로그램을 통하여 도내 스타트업이 수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또한, 해외 현지시장에 협력센터를 운영하여 스타트업 기업이 해외에서 신규판로개척과 마케팅 활동 시 겪게 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제도를 마련한다.

Table 6. Major Supporting Projects for SMEs in Jeonllabuk-do

도내 기업지원기관	사업 활동 명(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지역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수출바우처 및 수출인큐베이터 온라인수출플랫폼 수출두드림기업 · 수출유망소상공인 지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자상거래 활용수출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수출BI) 글로벌강소기업 지원 및 수출바우처 사업 수출 및 해외투자 지원 사업
코트라 전북지원단	외국인직접투자(FDI) 정보 제공 수출유망품목 및 해외시장 판로개척 바이오퍼 및 전시회 참여 지원 사업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국제협력 산업정책 지원 탄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 지원 탄소산업해외판로 개척 지원 수출국 산업동향, 제3자 제품인증 획득지원 국제복합재 전시회 개최·참여 지원
캠틱종합기술원	기업성장지원 및 해외바이어 초청 시제품 제작 지원 및 제품고급화 해외시장조사 및 국내·외 박람회 참가/참관 기술사업화 전문가 컨설팅 사업 분석/인증/특허 취득 지원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해외통상거점센터(베트남, 인도) 전북형 수출바우처 및 수출상담회 운영 등 단체·개별박람회 참가지원 외국어 통번역 및 마이오피스 지원 해외온라인 마케팅 활동지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글로벌벤처창업 및 전북성장육성 바우처 지원 베트남 진출거점 운영센터 온라인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 운영 사업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식재산권출원, 시험분석, 데이터진단 활용비 및 토탈마케팅 지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상용차 부품 R&D센터 및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산업 자동차품질인증 부품지원센터

자료: 2022년 전라북도 중소기업지원 시책

V. 결론

앞서 조사된 바와 같이, 현재 전라북도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등 무역유관기관들이 주도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의 일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산업의 구조적인 차이와 중소기업이 독립적으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 유관기관과 단체, 그리고 기업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수출지원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더욱이, 중소벤처기업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 지역경제에서 중소기업 수출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전라북도와 전국의 규모별 기업체 수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전국 평균 대기업의 비율은 전라북도 지역의 2배에 이를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우도 전국 평균 대비 전라북도의 비율이 약 1.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2021년 기준 중소기업의 수출액이 전체 전북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8.2%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전라북도 수출을 견고히 견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타 지역과 비교하여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었듯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지원 기관은 차별성 없이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특성이나 지원목적이 아닌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는 명분에서 나온 것이다. 다시 말해, 전라북도 중소기업은 무엇보다 지역과 산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이전 연구에서 제세된 바와 같이 수출지원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고 수출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전라북도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제공하는 유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유사한 지원 프로그램을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 인해 지원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전라북도 수출중소기업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판단되어진다.

COVID-19로 인해 급격하게 변화한 국제시장에 유연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기에 전라북도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사업개선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전라북도 지역은 과거 대기업 중심의 수출산업 정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수출지원 사업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앞장에서 전라북도 중소기업 수출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현행 사업의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전라북도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지원 사업의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비(非)도시지역이면서 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라북도의 지역적 조건을 고려되었던 전라북도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수출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수출업체의 규모, 산업형태,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전북 수출업체에 특화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제도가 요구된다. 이는 곧, 전라북도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출지원사업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존의 수출 진흥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출지원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소규모 지역수출기업의 국제화 역량을 고려한 단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진다.

둘째, 중소기업들이 수출준비 단계에서 주력진출시장 및 특화상품선정 결정과 관련된 일반적인 의사결정 문제 이외에도 복잡한 관세, 비관세장벽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현지 유통방식 결정에 필요한 시장정보를 확보하고 파악하는 것은 수출업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현재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과 각 부문별 수출시장정보를 제공하는 무역협회와 KOTRA 등의 기관이 존재하지만 제공되는 정보의 수준이 중소기업들의 수출여부를 결정하거나 수출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의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진다. 다시 말해, 영세한 전라북도의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일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간주 된다. 또한, 현재 각 기관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중소기업들이 영위하는 산업 및 품목을 기반으로 상대국가의 수출가능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수출을 시작하려는 전라북도의 중소기업 입장에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유통 채널, 그리고 경쟁력 및 경쟁자에 대한 분석이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라북도 중소 수출기업의 현황에 맞는 해외시장 진출지원제도를 기획하여 주요 업무를 관세 및 비관세장벽, 유통채널, 그리고 경쟁력 및 경쟁자에 대한 분석을 품목·시장별로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전라북도 중소수출업체들이 수출전략을 세우기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도를 통해 전북지역 내 신규 소규모 수출기업을 유도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의 산업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지원사업의 기획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현재 FTA이행지원센터는 FTA 체결에 따른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 동향을 조사하고 수입 이후에 나타나는 영향을 분석하여 평가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농업 전문 인력들과의 협업을 위해 FTA이행지원센터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하에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라북도 농식품 수출기업의 효율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FTA이행지원센터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라북도가 특화한 주력품목에 대한 현지수요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진다. 이후, 농식품 산업과 관련하여 정확히 분석된 정보를 바탕으로 전라북도 중소수출업체에게 유통채널 및 마케팅전략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순차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References

- 김진삼. (2011). 경북지역 수출중소기업의 수출지원제도 활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세학회지*, 제12권 2호, 327-346.
- 김진삼, & 김영식. (2011).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제도 인지 및 활용과 수출성과의 실증분석- 경북지역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제12권 1호, 351-375.
- 김태환, & 송진구. (2020).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수출바우처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화에 대한 연구 - 경기도 안양 지역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무역보협연구*, 제21권 제6호, 17-38.

- 김현창. (2021). 경기도 중소기업 현황과 정책제언. *GRI연구논총*, 제23권 제3호, 165-189.
- 김민호, 박은옥, 최경숙, 한방울, & 석준호. (2022). 전라북도 중소기업 수출 증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 나정호, 이병훈, & 정호중. (2020). 전라북도 수출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 박경민, 류희한, & 이충배. (2022).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애로요인이 수출지원제도의 활용과 수출성파에 미치는 영향. *관세학회지*, 제23권 2호, 207-225.
- 박건영. (2019). 한국의 지역별 수출집중도와 경제성장. *경영건설팅연구*, 제19권 1호, 109-119.
- 박영호, & 최장우. (2015). 대전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제도 만족도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11권 제2호, 521-536.
- 오현성, & 임현미. (2021). 전라북도 중소기업 수출 증장기 종합계획.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 오원선, 김준우, & 윤호성. (2010). 인천지역 중소기업 정보화 현황 및 발전방안. *디지털정책연구*, 제8권 제3호, 169-180.
- 유세준. (2010).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2권 4호, 193-211.
- 이두영, 김상현, 정대희, 김범석, & 문한필. (2021). 디지털 무역 시대의 농식품 수출 대응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1-273.
- 이상진, & 김형철. (2017). 중소수출기업을 위한 수출지원제도의 효율화 방안. *국제상학*, 제32권 제1호, 253-271.
- 이재은, 강지원, 최성형, & 최순규. (2017). 기술역량과 국내 마케팅역량이 수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변동성의 조절효과: 광주·전남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제42권 제4호, 21-47.
- 조성주, 문한필, 김상현, & 오새라. (2019). 농식품 기업의 수출 결정 요인 및 전략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1-175.
- 최동오, & 유찬. (2021).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가 수출성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국제e-비즈니스연구*, 제22권 3호, 187-198.